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오류 분석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노 채 환*

Roh Chaehwan. 2017. 6. 30. **An Error Analysis of Korean Monophthong by Myanmar Learners of Korean -Based on the Element Theory-**. *Bilingual Research* 67, 103-127.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honological phenomena that occurred on the acquisition of a Korean monophthong system of Myanmar learners. It is mainly examined in terms of the internal representation of vowels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Element Theory.

When Korean monophthong input is given, Myanmar learners reanalyze and adjust it based on the internal representation existing in the Myanmar vowel system, or on that of the target Korean. And this is pronounced by output. Positive and negative transitions appear in this process.

The commonality of the internal structures of /i/, a, u, o, e/ explains the positive transfer of those vowels by Myanmar speakers of Korean. On the other hand, substitution errors of [ɛ] for /e/, [ɔ] for /o/, and [u] for /i/ by negative transfer are found in Myanmar learners' pronunciation derived from adapting internal representation of Myanmar vowel to Kore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Acquisition of monophthong(단모음 습득), Element(구성원소), Internal representation(내적 구조), Positive transfer(긍정적 전이), Negative transfer(부정적 전이)

* 본 논문의 오류를 잡아주시고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1. 들어가며

외국어 학습 및 습득에 있어 발음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 학습 초기에 굳어지기 쉬운 영역이다. 어휘나 문법과 같은 영역에서 학습자들의 실력 향상이 학습 시간과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과 달리 발음 영역에서는 학습자들의 능력 신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발음은 학습 초기에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하는 데 있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어휘나 문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고급 학습자들의 발화에서 학습 초기에 발견되었던 발음 오류가 동일¹⁾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음 영역에서는 여전히 학습자들의 모국어의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국어의 간섭과 더불어 목표어의 음운 체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목표어의 음운 체계 지식이 발음에 혼동을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목표어의 언어음을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산출하는 오류들은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음운 체계를 습득해 가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음운 체계의 올바른 분석과 더불어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음운 체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산출해 내는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미얀마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²⁾으로 한

-
- 1) 물론 발음의 오류의 빈도수가 초기 학습자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의 비해 발음 오류의 빈도수는 적지만 초급 단계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동일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고급학습자들도 한국어의 종성비음 /n/과 /ŋ/의 구분에서 흔히 오류를 범한다. 또한 한국어 모음에서 /ə/와 /o/의 혼동도 중, 고급 단계의 여러 언어권 학습자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 2) 본고에서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선행연구분석에서도 밝히겠지만 먼저 미얀마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오래되었음에도 미얀마인 학습

국어 음운 체계 중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는 단모음에 초점을 맞추어 단모음의 습득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³⁾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모음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를 살펴 인지와 산출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먼저 교실 현장에서 제시되는 한국어의 모음체계를 바르게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한국어 모음을 인지하고 산출하는지 실제 발화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분절음이 일원적인 원소로 구성됨을 제안하는 구성원소 이론(Element theory)을 분석의 틀로 삼는다. 구성원소 이론은 화자의 조음에 초점을 맞추어 분절음을 분석하는 변별적자질 이론과 달리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언어음에 대한 음운론적 지식을 포착하는 것을

자의 발음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2004년부터 2년 간 YUFL(Yango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당시 학생들이 한국어 모음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늦었지만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3)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필자가 2004년~2005년에 YUFL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집한 오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당시의 오류 수집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어 회화 수업을 듣는 2학년,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였다. 오류 자료의 수집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말하기나 대화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와 어색한 발음을 기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후 오류 자료가 너무 오래되었으므로 2016년 12월~2017년 3월까지 현재 YUFL과 MUFL(Madaley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양 학교의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1학년 학생의 경우 현지인 교수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2학년부터는 회화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파견한 한국인 교사에게 수업을 듣고 있다. 정확한 오류 수집과 분석을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재조사를 해야 하나 일정의 여의치 않아 2017년 현재 양곤외국어대학교에 재직중이신 ‘Thanda Kyaw’ 교수님과 만달레이외국어대학교에 재직중이신 ‘Phyu Phyu Aung’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 오류를 수집하였다. 1~2학년 학생들이 한국어 모음 발음에서 쉽게 잘하는 발음과 어려워하는 발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음의 오류가 무엇인지 조사를 부탁드렸고 두 분 모두 여러 번에 걸쳐 학생들의 발음 오류 자료와 더불어 쓰기에서도 혼동을 일으키는 오류도 함께 보내어 주셨다. 지면을 빌어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언어음에 있어 화자의 산출과 청자의 인지에 모두 초점을 맞추어 분절음을 분석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모음을 듣고 어떠한 인지를 통해 산출을 하는가에 대해 기존의 자질이론과 차별성을 갖는다. 구성원소 이론의 개념과 특징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 선행 연구

미얀마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93년 당시 수도였던 양곤에 위치한 양곤 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7년 만달레이 지역에 위치한 만달레이외국어대학교에도 한국어과가 설립되었다. Myat Thida Oo · Chaw Chaw Thu(2016)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가을동화’ 드라마를 통해 한류가 확산되면서라고 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과는 달리 미얀마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미얀마 유학생 및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국제협력단 파견 봉사단원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이 어휘와 문법 분야에 한정⁴⁾되어 있다. 발음과 관련된 연구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한 킨뚜자(2015)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를 대조한 연구인 킨뚜자 · 김보미 · 권성미(2015)가 있다. 킨뚜자(2015)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에서 논의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다만 모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실 현장에서 제시되는 한국어 모음체계를 표준발음법에 따른 10모음 체계를

4) 미얀마에서의 한국어교육 및 미얀마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들은 Myat Thida Oo · Chaw Chaw Thu(2016)과 킨뚜자 · 김보미 · 권성미(2015)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다루지 않는다.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고 학습자들의 모음 습득의 난이도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오류 자료를 바탕으로 모음의 습득 양상을 고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 언어의 모음 체계 대조를 통한 난이도 예측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킨뚜자·김보미·권성미(2015)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미얀마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미얀마어에 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들로는 몇몇이 있으나 이는 모국어로서의 미얀마어에 대한 연구들⁵⁾이다. 킨뚜자·김보미·권성미(2015)에서는 대조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교수·학습 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 언어의 자음 음소 목록의 대조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 발음 난이도에 대해서 논하였다. 킨뚜자·김보미·권성미(2015)에서는 미얀마어 모음에 성조, 이중모음 등의 부가적인 문제가 있어 우선적으로 자음을 다루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보더라도 미얀마인 학습자들을 발음 양상을 다룬 연구는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발음을 위한 연구의 기초는 모음과 자음 체계의 습득이다. 그 중에서도 단모음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 있어 제일 먼저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을 위한 모음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본고는 특히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단모음 습득 과정에서 일으키는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분절음의 기술에 있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방식은 [+Feature]의 변별

5) 킨뚜자·김보미·권성미(2015)에서는 이러한 연구들로 Aung Win Naing(2000), U Shwe Thwin(1969),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 Htun Myint(2007), Mg Khin Min(DaNuPhyu)(2012), Thein Thun(2007, 2012)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적 자질의 총합으로 분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자질의 총합을 통해 분절음 나타내는 방식은 독립된 자질 하나만으로는 어떠한 분절음도 나타낼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절음을 자질의 총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분절음을 구성하는 내부 자질들의 값이 모두 동일하게 해석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절음은 변별적 자질의 표시에 의하면 [+low, -round, +back]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방식에서는 /a/를 구성하는 세 자질 중 무엇이 /a/ 모음의 특징을 드러내지는 알 수 없다. 또한 [+low]나 [-round] 그리고 [+back]은 어떠한 자질도 독립적으로는 분절음 /a/를 나타낼 수 없다. 그리고 변별적 자질을 통한 분절음의 표시는 변별적 자질이 분절음의 내부 자질들이 어떠한 음운론적 구조를 가지고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ㄱ/와 /ㄲ/의 변별적 자질에 의한 표시를 보도록 하자.

(1) /ㄱ/ - [-high, -low, -back, -round]

/ㄲ/ - [+low, -back, -round]

(1)은 한국어 /ㄱ/와 /ㄲ/의 변별적 자질 표시이다. 이러한 표시에 따르면 /ㄱ/는 모음의 구성하는 모든 자질의 [-F]⁶⁾값을 가진 것으로 표기된다. 논리적으로 [-F]라는 것은 ‘F’ 값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르면 /ㄱ/는 어떠한 특성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ㄱ/와 /ㄲ/는 원순모음이 아니라는 특성보다는 전설모음이라는 것이 더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1)의 변별적 자질에 의한 표시에서 [-back]과 [-round]가 동일한 등가를 갖게 된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 /ㄲ/는 [c]로 발음되어 /ㄱ/와 합류되었는데 변별적 자질 표시에 의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야 한다.

6) 여기서의 ‘F’는 자질(feature)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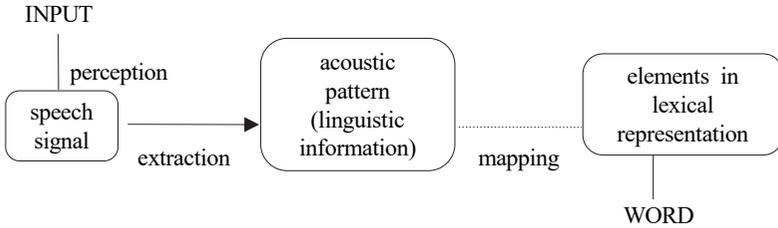
(2) [+low, -back, -round] → [-high, -low, -back, -round]

(2)는 /ɛ/[ε] 가 /ɛ/[e]로 변함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이는 변화의 기술이지 어떠한 음운론적 작용에 의하여 이러한 변동이 일어나는가는 말해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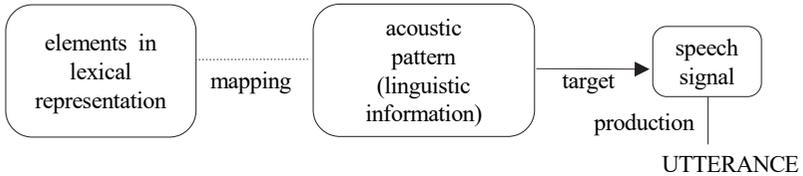
언어음체계에 있어 변동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분절음의 표시는 음운론적 제약을 바탕으로 한 분절음의 내적 구조의 변화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기존에 이분법적인 자질 표시로 분절음을 나타내었던 변별적 자질의 방법론을 지양하고 자질 본래에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절음이 원초적 음운론적 원소(primitive phonological element)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구성원소의 개념은 Schane(1984)의 입자음운론(Particle phonology)을 통해 처음 제시된 이후 의존음운론(Dependent phonology)과 지배음운론(Government phonology)에서 분절음의 내적 구조를 기술하는 방식⁷⁾으로 쓰였다. Bäckley(2011)에서는 구성원소 이론에서 말하는 분절음이란 단순히 화자의 발화를 통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발화한 분절음을 청자가 분절음이라 인식할 때 그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가 음운론적으로 분절음이라 공유하는 언어음에 대한 지식 체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언어음의 입력과 산출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조음과 더불어 음향적 신호가 입력과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Bäckley(2011)에서는 언어음의 입력과 산출을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7) Bäckley(2011)에서는 구성원소의 개념이 지배음운론을 통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특정한 음운이론에 종속되지 않고 분절음을 표시하는 독립적인 방법론에 속한다고 하였다. 즉, 구성원소 이론은 음운이론이라기 보다는 분절음의 표시를 위한 이론으로 어떤 음운이론에서라도 분절음의 표시를 위해 구성원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구성원소 이론은 이론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The Communication process(hearers):(Backley, 2011: 5)



<그림 2> The Communication process(speakers):(Backley, 2011: 6)

이를 외국어학습에 관점에서 보면 청자인 학습자들은 목표어의 입력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가진 언어정보를 동원하여 해당 음을 인지하고 재인식 과정을 통해 언어음으로 출력한다. 즉, 학습자들의 목표어 인지 및 산출은 음성적 인식과 더불어 학습자의 음운론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분절음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원소가 독립적 인지와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갖는다.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음을 나타내는 구성원소들은 다음과 같다.

- (3) I : 전설성(frontness)
- A : 개구성(openness)
- U : 원순성(roundness)

이들 세 원소는 독자적으로 각각 /i/, /a/, /u/로 발음이 가능하다. 한 언어의 모음 체계는 위의 기본 3원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하나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모음을 단순모음(simplex vowel)이라 하고 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모음을 복합모음(complex vowel)이라 한다.⁸⁾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소의 결합이 주종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종 관계는 해당 음운의 내적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해준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e]는 구성원소 I와 A로 구성되는데 이 때 구성원소 I의 역할이 더 두드러져 I가 주가 되고 A는 종이 된다. 이렇게 복합모음에서 주가 되는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를 머리자(head)라 하고 주가 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를 연산자(operator)라 한다. 이 때 기술의 편의상 머리자에는 I와 같이 밑줄을 그어 나타낸다. 이 때 구성원소들의 결합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자가 두 개 이상인 분절음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 A)는 가능하지만 (I, A)는 불가능한 조합⁹⁾이다.

이제 이러한 구성원소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미안마어의 단모음 체계를 살펴 미안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모음을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8) 예를 들어 구성원소 I와 A가 결합하면 [e] 또는 [ɛ]가 되고 A와 U가 결합하면 [o] 또는 [ɔ]가 된다.

9) 이 때 결합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I, A)와 (A, I)는 같은 음운의 내적 구조이다.

4. 미얀마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

4.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4.1.1.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

본고에서는 논하는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때의 단모음을 기준으로 한다. 발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7~8모음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표준 발음에서는 한국어의 단모음을 10개라 규정하고 ‘ㄱ’와 ‘ㄴ’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함을 허용한다¹⁰⁾고 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이러한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ㄱ/와 /ㄴ/를 이중모음으로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표기상 ‘ㅑ’와 ‘ㅓ’로 구분되는 것 또한 현실 발음에서는 거의 [e]로 합류한 것을 반영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ㅑ/와 /ㅓ/의 발음을 구분하여 발음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7모음이라 제시한다. 이러한 한국어의 단모음을 구성원소를 통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¹⁾

(4) 한국어 단모음의 음운 표시

ㅣ	ㅏ	ㅓ	ㅑ/ㅓ	ㅜ	ㅛ	— ¹²⁾
ㅣ	ㅣ	ㅣ	ㅣ	ㅣ	ㅣ	ㅣ
x	x	x	x	x	x	x
ㅣ	ㅣ	ㅣ	ㅣ	ㅣ	ㅣ	ㅣ
<u>I</u>	<u>A</u>	<u>U</u>	<u>I</u>	<u>U</u>	<u>∅</u>	<u>∅</u>
ㅣ	ㅣ	ㅣ	ㅣ	ㅣ	ㅣ	ㅣ
∅	∅	∅	A	A	A	∅

10) 표준발음법 ‘제 4항’

11) 구성원소 이론을 통해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대한 고찰은 김선정·허용(1999)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4)의 음운 표시를 보면 한국어에서 구성원소 I와 구성원소 U의 역할이 두드러짐¹³⁾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에서 /ɛ/와 /ɔ/가 존재하기 어려움을 예측하게 해 준다. (4)를 보면 원순모음에서 구성원소 U가 모두 머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ɔ/는 (A, U)로 구성되어 구성원소 A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구성원소 U와 A 사이에 구성원소 U의 작용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언어에서 모음체계에서 /ɔ/가 존재한다면 한국어의 /o/의 인지에서 재해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해준다. 또한 (4)에서는 ‘개’¹⁴⁾와 ‘개’가 모두 동일한 구성원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구성원소 I와 구성원소 A의 결합에서 구성원소 I의 역할이 두드러짐을 말해준다. 즉 /k/ [k]의 내적 구성은 (A, I)인데 한국어에서는 구성원소 I와 A의 결합에서는 구성원소 I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이 불가하여 결국 ‘개’와 ‘개’는 동일한 구성인 (I, A)의 구성을 갖게 되고 발음의 합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분절음을 구성원소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방식은 분절음의 내적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이 비대칭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목표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할 때 학습자들이 산출하는 단모음 오류는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의 분절음 간의 내적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예측하게 해 준다.

-
- 12) /—/는 무표모음으로 특징적인 구성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적 구조에서 ‘∅’의 표시는 머리자 위치가 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러한 무표모음은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ə/, /i/, /u/ 등으로 나타난다.
- 13) 김선정·허용(1999)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어 모음의 승인 제약(Licensing constraint)을 통해 한국어에서는 구성원소 I와 구성원소 U가 모두 머리자여야 함을 논하였다.
- 14) ‘개’는 문자로 표기되는 것을 나타낸다. /k/는 음소 표기를 나타낸다. 즉 한국어 단모음 체계에서 ‘개’와 ‘개’는 문자로는 다르게 표기되나 음소로는 모두 /k/로 나타난다.

4.1.2. 미얀마어의 단모음 체계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에서는 미얀마어의 단모음음로 /i, a, u, e, ε, o, ɔ/의 7모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와 모음의 개수는 동일하나 그 구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구성원소를 통한 미얀마어 단모음의 음운 표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미얀마어 모음의 음운 표시

i	a	u	e	ε	o	ɔ
x	x	x	x	x	x	x
<u>I</u>	<u>A</u>	<u>U</u>	<u>I</u>	<u>A</u>	<u>U</u>	<u>A</u>
∅	∅	∅	A	I	A	U

구성원소를 통한 미얀마어 단모음 체계와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미얀마어에서는 구성원소 I와 U가 연산자로 존재할 수 있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모음의 목록이 추가된다. 이는 한국어의 단모음 습득에 있어 긍정적 전이와 더불어 모음 체계의 분산에 따른 부정적 전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 준다. 바로 이러한 내적 구조의 차이에 의한 모국어 간섭 및 목표어 음운 체계에 대한 인지 및 재해석이 단모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4.2. 미얀마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

4.2.1. 긍정적 전이

앞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의 음운 표시를 보면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단모음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습득이 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다. 즉, 한국어 단모음 목록 중에 /ㅡ/와 /ㅣ/를 제외하고 다른 모음들은 미얀마어 단모음 체계에도 같은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습득이 대체로 용이하다. /ㅡ/와 /ㅣ/를 제외한 양 모음의 내적 구조를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i	a	u	e	o
	x	x	x	x	x
	<u>I</u>	<u>A</u>	<u>U</u>	<u>I</u>	<u>U</u>
	∅	∅	∅	A	A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ㅡ/와 /ㅣ/ 모음을 제외한 다른 모음¹⁵⁾들은 한국어와 미얀마어에서 내적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¹⁶⁾ 즉,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내에서도 구성원소 I와 구성원소 U가 머리자로 기능하여 전설

15) (7)의 모음 중에서 /ㅏ/ 모음은 학습자들의 개인 차가 존재하여 습득이 용이한 경우도 있고 [o]로 발화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의 /ㅏ/를 [o]로 발화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이에 포함하여 논의한다.

16) 이러한 주장이 내적 구조가 동일한 한국어의 모음과 미얀마어의 모음의 음성적 값이 동일한 모음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어의 /a/의 경우 한국어의 /ㅏ/에 비해 전설 쪽에서 발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음성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어의 /a/와 한국어의 /ㅏ/는 내적 구조가 동일하여 음운론적으로 같다고 인지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과 원순성이 두드러지는 모음이 존재하고 이는 한국어의 모음 체계를 인지할 때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게 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부분의 단모음을 인식하고 산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인식과 산출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한국어 단모음을 음운론적으로 인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분절음의 내적 구조를 머리자와 연산자에 의해 음운론적 역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이는 기존의 조음음성학적 접근과 큰 차이점을 갖는다. 즉,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전이가 단순히 음성학적 자질의 일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지식공유에 의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준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서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과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국어 모음 /ɨ/의 습득이다. 한국어를 발음 교수에서 여러 언어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은 한국어 모음 /—/, /ɨ/, /ɨ/와 관련¹⁷⁾된다. 이중 한국어 /—/에 대한 오류는 학습자들의 모음 체계 내에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고 /ɨ/ 또는 /ɨ/와 관련된 오류는 모국어의 존재하는 유사한 모음과의 대체로 인한 오류이다. 이 중 많은 언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ɨ/ 모음의 발음을 어려워하는 것과 달리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비교적 한국어의 /ɨ/ 모음의 습득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의 /ɨ/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이 미얀마어의 단모음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얀마어의 음절 약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변이음으로 [ə]가 존재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얀마어에 [ə]는 /a, i, u, e, ε/ 모음들이 주로 1음절에 위치하여 강세

17) 일본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의 /—/를 [u]로 한국어의 /ɨ/를 [o]로 산출하는 오류들을 보인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의 /—/를 [ɨ] 또는 [u]로 한국어의 /ɨ/를 [i]로 산출하는 오류를 보이고 또한 한국어의 /ɨ/와 /ɨ/를 혼동하는 오류들을 보인다.

를 받지 않는 경우 영어의 ‘schwa’와 같이 나타난다.¹⁸⁾

(7) 음절 약화의 과정에서 [ə]의 실현¹⁹⁾

ခရီး /k ^h ayi:/	[k ^h əyi:]	여행
အခန်း /ak ^h an:/	[ək ^h an:]	방
ပိနီ /p ^h inaʔ/	[p ^h ənaʔ]	신발
နိမိတ် /nimeyʔ/	[nəmeyʔ]	징조
ကုလားထိုင် /kula:t ^h ain/	[kəla:t ^h ain]	의자
ဘုရား /p ^h uya:/	[p ^h əya:]	불탑
ခွေနတ် /t ^h enaʔ/	[t ^h ənaʔ]	총
ဘယ်သူ /bəd ^h u/	[bəd ^h u]	누구

(7)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미얀마어의 [ə]는 독립적 음소로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모음들의 변이음으로 나타나고²⁰⁾ 이 때 [ə]의 내적구조는 한국어의 /ɪ/와 동일한 (∅, A)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볼 때 미얀마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ɪ/ 모음은 1 대 1의 대응을 보이는 모

18) Aung Win Naing(2000)

19) 장준영(2014), p32의 예를 가지고 온 것이다. 장준영에서는 유기음을 /hp, ht/와 같이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IPA의 표기 방식에 따라 표기하였다.

20) Disner(1984)에서는 모음의 산포 원리를 통해 모음 체계는 균등한 분포를 이루며 나타남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통 주변부 모음으로 구성된 5모음 체계 이후 중앙부 모음이 추가된 체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미얀마어의 기본 단모음 체계는 7모음 체계로 중앙부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Disner(1984)는 주변부 모음으로만 구성된 모음 체계보다 주변부 모음과 중앙부 모음이 혼재된 체계가 모음산포원리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얀마어에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ə]는 미얀마어의 기본 모음 체계의 중앙부 모음을 채워 모음의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한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용(2011)에서는 모음의 산포원리를 바탕으로 결손체계를 갖는 언어들에 보완 행위가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변부 모음으로만 구성된 미얀마어의 기본 모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부 모음인 [ə]가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음으로 제시하지 않고 미얀마어의 타모음들이 음절 약화 과정에서 변이음으로 실현되는 음과 동일한 소리로 제시하면 긍정적 전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4.2.2. 부정적 전이

4.2.2.1. 한국어 /ㄱ/와 /ㄲ/ 모음의 오류

타언어권 학습자들의 쓰기에서 한국어 단모음 ‘ㄱ’와 ‘ㄲ’의 오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발음적으로는 [e]로 합류되어 두 모음을 구분하지 않지만 문자로는 ‘ㄱ’와 ‘ㄲ’가 쓰이는 각각의 어휘들을 기억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듣는 단어나 알고 있는 단어의 경우에도 쓰기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쓰기 오류가 나타난다. 그리고 발음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의 /ㄱ/와 /ㄲ/를 구분하여 발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ㄱ/와 /ㄲ/가 발음으로는 /e/로 합류되어 동일하게 발음하는데 비해 미얀마어에서는 /e/와 /e/각각 독립된 문자와 발음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의 /ㄱ/를 [e]로 발음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즉,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ㄱ/를 바르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산출하면서도 미얀마어 모음체계에서 /e/와 /e/가 존재함으로 인해 한국어의 /ㄱ/와 /ㄲ/를 구분하여 발음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의 /ㄱ/를 미얀마어의 /e/에 적용시켜 발음하는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 | | | | |
|--------|-----------|------------|----------|
| (8) a. | 내가[내가] | 깨끗하다[깨끗하다] | 현재[현재] |
| | b. 제가[제가] | 숙제[숙제] | 게을러[개을러] |
| | 우체국[우체국] | 외국어[왜국어] | |

(8)의 오류를 보면 먼저 한국어의 ‘개’를 [ɛ]로 발음한 것을 볼 수 있다.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이러한 발음이 오류가 아닐 수 있으나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ɛ]를 발음할 때 저설성이 두드러지면서²¹⁾ 한국인이 듣기에 어색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는 한국어의 문자 표기에 ‘개’와 ‘개’의 구분이 있어 문자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에 대해 발음으로도 구분을 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 때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에는 /e/와 /ɛ/가 모두 들어있고 /ɛ/의 내적 구조를 보면 /ɛ/ (A, I)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을 /ɛ/의 주요 특성인 개구성을 살려 발음을 하면 한국인이 듣기에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다.

(8a)는 한국어 /개/를 [ɛ]로 발음한 오류로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쓰기 오류로 인한 발음의 오류이다. ‘숙제’를 [숙재]로 발음하는 경우 ‘숙제’라는 어휘가 미얀마인 학습자들 중 문자 표기를 ‘숙재’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 (8a)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글자에 따라 발음을 구분하려는 것에서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숙제/라는 인지가 주어졌을 때 2음절에 있는 /개/에 대한 입력이 주어지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에 존재하는 /ɛ/로 대체시키는 경우이다. 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사이에 전설 모음 체계를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21)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개/, /개/를 [ɛ]로 발음하는 것이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의 단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음소 차원에서 오류가 아니라 음성실현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음성 실현에 있어 미얀마어 모음 체계에 존재하는 /ɛ/는 개구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듣기에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다.

<표 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전설 모음 체계

한국어	미얀마어
i (I, Ø)	i (I, Ø)
e(I, A)	e(I, A)
	ɛ(I, A)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 한국어의 전설모음 체계는 /i/와 /e/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저설모음의 /ɛ/가 /e/로 합류되면서 10모음 체계의 /e/가 점유하는 영역과 7모음 체계의 /e/가 점유하는 영역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미얀마어에서는 중설과 저설을 /e/와 /ɛ/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한국어 /e/를 인지했을 때 구성원소의 역할 교체²²⁾를 통해 /ɛ/로 해석될 수 있는 것²³⁾이다. 이러한 재해석에 따라 한국어의 /ɰ/를 [ɛ]로 발음하게 되는 오류들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오류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어의 ‘ɰ’와 ‘ɱ’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e/와 /ɛ/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합류된 발음에 따라 /e/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자모를 제시하는 교사가 언어 사용 전반에 걸쳐 ‘ɰ’와 ‘ɱ’를 음소적으로도 /ɰ/와 /ɱ/로 구분을 하기 어렵다면 정확한 제시를 할 수 없고 현실 발음과의 괴리로 인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에게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22) 구성원소의 역할 교체(*switching*)란 해당 언어에 존재하는 음운론적 제약은 준수하면서 일어나는 머리자와 연산자 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Charette, M. & Göksel, A.(1994)에서 제안되었다. 한국어에서 구성원소 I는 머리자로 기능해야 하나 미얀마어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성원소 I와 구성원소 A의 결합에서 머리자와 연산자의 역할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23) 필자가 미얀마 양곤외대에서 근무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이 발음하는 것이 /e/예요? /ɛ/예요?’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학생들의 발음의 차이를 인지적으로는 구분하였으나 스스로 구분해서 다시 재산출하기가 어려웠다. 즉, 구분된 소리로 들을 수는 있으나 본인이 구분하여 발음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어 발음하는 ‘ɰ’와 ‘ɱ’에 대해 약간의 차이라도 /e/와 /ɛ/를 명확히 구분하는 언어에서는 민감하게 둘의 발음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국어 ‘ㄱ’와 ‘ㄲ’의 제시와 자모 교육에서는 합류된 발음으로 제시하고 쓰기 교육에서 구분하여 쓸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4.2.2.2. 한국어 /—/ 모음의 오류

한국어의 /—/ 모음과 관련된 오류는 미얀마인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개 인차가 나타난다. 미얀마어 모음 체계에 /—/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모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에 대해 일부 학습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한국어 의 /—/ 모음을 습득하는 반면 일부 학습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어의 /—/ 모음을 미얀마어의 /u/로 대체하여 발음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대표 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9) a. 응원[웅원] 극장[국장] 2층[2층]
 b. 적극적[적국적] 아름답다[아름답다]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을 들었을 때 해당 음의 구조가 모국어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에 어 려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²⁴⁾가 있다. 반면에 새로운 구조를 인지했을 때 모국어에서 대체음을 찾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모음 /—/를 미얀마어 단모음 /u/로 대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의 입력이 들어오면 /—/ 의 내적 구조는 (∅, ∅)로 특징적인 구성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때 이러한 구조를 무리없이 인지하고 산출로 이어지는 경우 긍정적 전이가

24) 영어의 예를 들어 보면 영의 /f/음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지만 학습을 통해 습득하 는 것이 어렵지 않다. /f/음을 외래어로 받아들일 때 /p/로 대체하나 영어로 학습할 때는 /f/의 인지와 산출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어의 /g/음은 한국어 의 유성음 사이에서 /ɣ/음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들 은 초성에서의 /g/를 무성음 [k]로 발음하는 오류를 많이 보인다. 즉, 전혀 새로운 것보다 유사한 발음이 인지와 산출에서 더 어려운 것이다.

일어나지만 해당 구조를 재해석하는 경우 부정적 전이가 일어난다. (9)의 예들은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 구조인 (\emptyset , \emptyset)를 인지하고 이를 미얀마어의 /u/로 재해석을 했음을 보여준다.

Backley(2011:50)에서는 모음의 기본 구성원소 I, A, U가 홀로 나타날 때 머리자가 아닌 연산자로 실현되어 약모음(weak vowel)으로 [i], [a], [u]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성원소를 가지지 않은 모음으로 [ɨ]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모음 중 구성원소를 갖지 않는 /—/를 가지고 있고 미얀마어에서는 기본 모음 목록에 속하지 않으나 단모음들이 음절 약화에 의해 변이음으로 실현되는 [a]²⁵⁾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가 단모음 체계에서 모음 목록에 존재하는 반면 미얀마어의 [a]는 변이음으로만 존재하고 단모음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에 대한 입력은 미얀마어 단모음 체계를 구성하는 모음목록 중에서 대체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5)에서 제시한 미얀마어의 단모음의 내적 구조를 보면 모든 모음이 머리자 위치에 구성원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머리자 위치가 비어 있는 한국어의 /—/ (\emptyset , \emptyset) 구조에 대해 머리자 위치를 채우고자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와 함께 후설모음을 이루는 미얀마어의 /u/의 구조 (U, \emptyset)를 입력된 (\emptyset , \emptyset) 구조에 적용시키게 되어 이에 따라 /u/로 ‘mapping’이 일어나 최종적으로 [u]로 산출하는 것이다.

4.2.2.3. 한국어 /ㄴ/ 모음의 오류

앞서 긍정적 전이에서 본 것처럼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경우 단어 내에서 한국어 모음 /ㄴ/를 발음할 때는 어렵지 않게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

25) 미얀마어에서 음절 약화 과정에 의해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a]에 대해서는 뒷절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이는 양 언어의 존재하는 /o/의 내적 구조가 (U, A)로 원순성이 두드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ㄴ/를 [ə]또는 [ɔ]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 /ㄴ/를 [ə]로 발음²⁶⁾하는 오류는 단어가 아닌 문장 차원에서 주로 일어난다.

(10) a. 오빠[오빠]

a'. 오빠[어빠]²⁷⁾하고 같이 살아요.

b. 노래[노래]

b'. 전기가 나가면 동생하고 노래[너래]를 불러요.

(10)의 예를 보면 단어 하나를 발음할 때는 한국어의 /ㄴ/ 모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발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장 차원에서 발음을 할 때 미안마어에 존재하는 음절 약화 규칙이 적용되어 한국어의 /ㄴ/ 모음을 [ə]로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절음의 내적 구조를 보면 한국어와 미안마어의 /o/의 내적 구조가 (U, A)로 구성원소 U가 머리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음절 약화의 과정은 모음의 내적 구조에서 주요 특징이 약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o/의 구성에서 머리자가 약화되어 구조에서 분리되면 (∅, A)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미안마어에서 변이음으로 나타나는 [ə]의 구조이고 한국어에서 /ɻ/로 실현된다. 즉, 미안마인 학습자들이 목표어인 한국어의 /ㄴ/에 대해 정확한 음가를 인지하고 있으나 산출의 과정에서 음절 약화의 규칙이 적용되어 머리가 구성원소 U의

26) 여기서 대체가 아니라 발음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단어 하나를 발음할 때는 [o]로 발음을 하지만 문장 차원에서 발음할 때 [ə]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ㄴ/에 대한 습득이 잘못 이루어졌다기 보다 한국어 /ㄴ/ 모음을 발화할 때 모국어의 음운규칙을 적용시켜 발음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7) 문장 차원에서 /오빠/를 [ɔp'a]로 발음하는 경우와 [ɔp'a]로 발음하는 경우가 모두 나타난다.

분리가 일어나 [ɔ]로 ‘mapping’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ɔ/를 제시하는 경우 교사는 /ɔ/의 음가를 단어 내에서 제시하는 것과 함께 문장 차원에서의 발음 제시 및 연습²⁸⁾을 병행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음절 약화 현상을 적용시켜 한국어의 /ɔ/를 [ɔ]로 발음하는 것과 달리 [ɔ]로 발음하는 것은 /ɔ/모음의 내적 구조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소의 역할 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한국어의 ‘ㅑ’와 ‘ㅓ’가 발음으로는 [e]로 합류된 것에 비해 미얀마어에서는 /e/와 /ɛ/로 정확히 구분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미얀마어에서 구성원소 U와 구성원소 A의 결합은 (U, A), (A, U)가 모두 가능하여 한국어에 비해 모음 분포가 더 세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후설 모음 체계

u(U, ∅)	u(U, ∅)
o(U, A)	o(U, A)
	ɔ(U, A)

한국어의 후설모음 체계는 원순성이 두드러지는 /u/와 /o/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해 미얀마어의 후설모음 체계는 /u/, /o/, /ɔ/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한국어의 /o/가 점유하는 영역과 미얀마어의 /o/가 점유하는 영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어 /o/에 대한 입력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구성하는 원소 U와 A에 인지하고 한국어와 같이 구성원소 U를 머리자로 하는 구조로 해석하여 긍정적 전이가 일어날 수 있

28) 허용, 김선정(2006)에서는 단모음 교육 방안에서 개별 낱말을 연습할 때는 학습자가 주의해서 발음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지 않는 반면 문장 차원에서는 오류를 일으키기 쉽다고 하면서 문장 내에서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주의해서 연습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고 구성원소 A를 머리자로 하는 구조로 재해석이 일어나면 구성원소의 역할 교체를 통해 /ɔ/로 산출²⁹⁾되는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의 내적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단모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를 살피고 부정적 전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각 모음별로 분석해 보았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단모음을 습득할 때 한국어의 /ㅡ/를 제외한 다른 모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는 양언어에서 모음들의 내적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에게서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먼저 한국어의 ‘ㅏ’와 ‘ㅑ’를 발음상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어 각각을 정확히 [e]와 [ɛ]로 구분하거나 /ㅏ/를 [ɛ]로 혼동하여 발음하는 것이 있었다. 이는 한국어에서 합류된 발음이 미얀마어에서는 분산되어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양 언어 모음의 내적 구조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의 /ㅡ/를 [u]로 대체하거나 /ㅓ/를 [ɔ] 또는 [o]로 대체하는 오류들이 있었다. 이 또한 양언어에 존재하는 모음들의 내적 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구조적 차이로 인한 대체가 목표어의 입력 후에 재해석과 재조정의 과정을 통해 오류

29)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ㅓ/ 모음을 [ɔ]로 발음했을 때 한국인 교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양곤외국어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습자들이 [o]와 [ɔ] 중 어떤 발음이 맞는지를 질문한 적이 있는데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초기에는 두 발음이 같은 발음으로 인지되었다. 이는 미얀마 학습자들이 발화하는 /ɔ/의 내적 구조인 (A, U)의 구조가 한국인 청자에게 입력되었을 때 한국어에 존재하는 구조에 따른 (U, A)로 조정되어 /ㅓ/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미얀마어를 학습할 때 미얀마어에서는 음소적으로 존재하는 /o/와 /ɔ/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이에서 찾을 수 있다.

로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언어음 인지 과정을 통해 한국어의 단모음을 산출하고 이 과정에 일어나는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발음 습득에 있어 이론적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이 발음교육의 실제적인 측면과 연계되지 못하였고 교실 현장에서의 발음교육 방법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것은 본 논의가 가진 한계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삼기로 한다.

<참고 문헌>

- 김선정 · 허용(1999). 승인제약 조건과 한국어 모음체계, <언어학> 25, 한국언어학회. 55쪽~75쪽.
- 김선정 · 허용(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 서울: 박이정.
- 킨뚜자(2015).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 대조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킨뚜자 · 김보미 · 권성미(2015).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와 미얀마어 자음 대조 연구, <우리어문학회> 52집, 우리어문학회. 361쪽~ 388쪽.
- 레이레이몬(2014). 『The 바른 미얀마어』. 서울: 이씨케이교육.
- 장준영(2014). 『핑떡고 알먹는 미얀마어 첫걸음』. 서울: 문예림.
- 허용(2011). 모음체계 연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5집, 비교문화학회, 723쪽~741쪽.
- Myat Thida Oo · Chaw Chaw Thu(2016). 미얀마 내 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학부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1쪽~78쪽.
- Anderson, John. M. & Colin J. E.(1987), *Principle of Dependency Ph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ung W. N.(2000). *An Introduction Course in Myanmar Language*, Yangon: YUFL.
- Disner, S. F.(1984). insights vowel spacing, In Maddieson, I. *Patterns of Sou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 *Myanmar Grammar*, Yangon: Myanmar Language.

- Backley, P.(2011). *An Introduction to Element The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 Charette, M. & Gökseel, A.(1994), Switching and Vowel Harmony, *SO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and Phonetics 4*, pp. 71-78.
- Schane, S. A.(1984) The Fundermentals of Particle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1*, pp. 129-155.

노채환(Roh Chachwan)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화번호: 02-2173-2550
전자우편: lordsb1@hanmail.net

접수일자: 2017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6월 13일
게재확정: 2017년 6월 16일